김영록 지사 "화순 백신특구, K-바이오 국가거점화"

화순군청서 도민과의 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화순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K-바이오 국가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320억 원)과 백신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80억 원) 유치를 발판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면역 중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형 첨단의료복합단지 밑그림을 완성했다.

전남은 이미 바이오메디컬 인프라가 갖춰져 충북 오송·대구·경북 등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최소 비용으로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전남-충북-대구·경북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의료 삼각축이 완성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드시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며 "유치 시 1조 원 규모의 국가 의료 연구개발 지원센터들이 들어서 국가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과 열악한 SOC 확충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주민들은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협력(유재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첨단화학연구소장) ▲남도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한대영 화순제일중 1학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 확대(임동휘 동면 이장단장)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증액(정순금 화순읍 벽라1리 이장) ▲나주 남평-화순 능주 지방도 822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김광기 도곡면 이장단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확대 운영(한동훈 화순예술인촌 입주작가) 등을 요청했다.

화순군에서도 읍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 소요사업 도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개원 시 주차장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관련, 김 지사는 "생산 감소 등 석탄공사의 경영 악화로 폐광지역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역 지원 방안과 퇴직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건의에 대해선 "나주 남평-화순 능주 구간의 교통량 증가를 감안, 도로 확포장을 위해 남평 1.85㎞ 구간 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10㎞ 잔여구간은 전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광주-화순 광역철도(5,225억·12.4㎞)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경전선 남해안 철도가 화순을 통과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길용현 기자

화순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가 28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무창 시의원, 시·도운영위원장협 부회장 선출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사진)이 27일 전남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의회의 화합과 합리적인 운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연대활동 등에 노력해왔다.

정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상호 협력하면서 지방의회 현안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남 1조7천억 반영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설 등
4차 대비 8,708억 규모 증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등 전남지역 10지구, 1조7,859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종 반영 예산은 전국 대비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전 4차 계획 9,151억 원보다 무려 8,708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20년 만에 이뤄진 고흥~완도와 고흥~봉래, 2개 구간의 국도 승격에 이은 민선7기 또 한 번의 쾌거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도 65지구 435㎞, 국도우회 4지구 31㎞와 국지도 47지구 260㎞ 등 116지구 726㎞에 이르는 10조 원 규모의 국가계획 반영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500억 원 이상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사업인 6개 지구 1조 6,104억 원과 500억 원 미만 4개 지구 1,755억 원 규모의 전남지역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국도의 경우 ▲여수~남해 해저터널(7.31㎞) 신설 6,824억 원 ▲신안 추포~비금(10.41㎞) 신설 3,827억 원 ▲고흥 영남~팔영(14.0㎞) 개량 691억 원 ▲신안 신석~단곡(9.12㎞) 개량 582억 원 ▲완도 신지~고금(7.24㎞) 개량 412억 원 ▲무안 마산~송석(7.24㎞) 개량 439억 원 ▲영암 금정~유치(10.56㎞) 개량 420억 원, 총 7지구 1조 3,195억 원이다.

국지도 사업은 ▲장성 동화~서삼(5.98㎞) 신설 1,325억 원 ▲나주 금천~도암(12.0㎞) 신설 2,855억 원 ▲담양 고서~창평(5.59㎞) 신설 484억 원, 3지구 4,664억 원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한려대교 건설계획 이후 20여 년의 성원 끝에 이뤄진 주민 최대 숙원으로,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가장 뜻깊은 성과다. 여수와 남해는 본래 지형상 좁은 바닷길이 사이에 있어 1시간 20분 이상 우회하는 거리이나 터널이 개통되면 5분 내외의 직선 단거리로 연결돼 영호남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진다.

2020년 개통한 여수~고흥 백리섬섬길과 연계해 부산~목포 해양관광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영호남 지역균형개발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 추포~비금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부권 신해양관광사업의 중심이 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했다.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크게 단축돼 섬 고립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 간선도로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물류 등의 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불량한 도로 선형에 따른 만성 교통정체가 해소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광주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한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으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693건)보다 2021년 266건으로 약 40% 급감하고, 지원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원대상을 2021년 대출 연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10월31일까지 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청구하면 되며, 12월까지 이자가 지급된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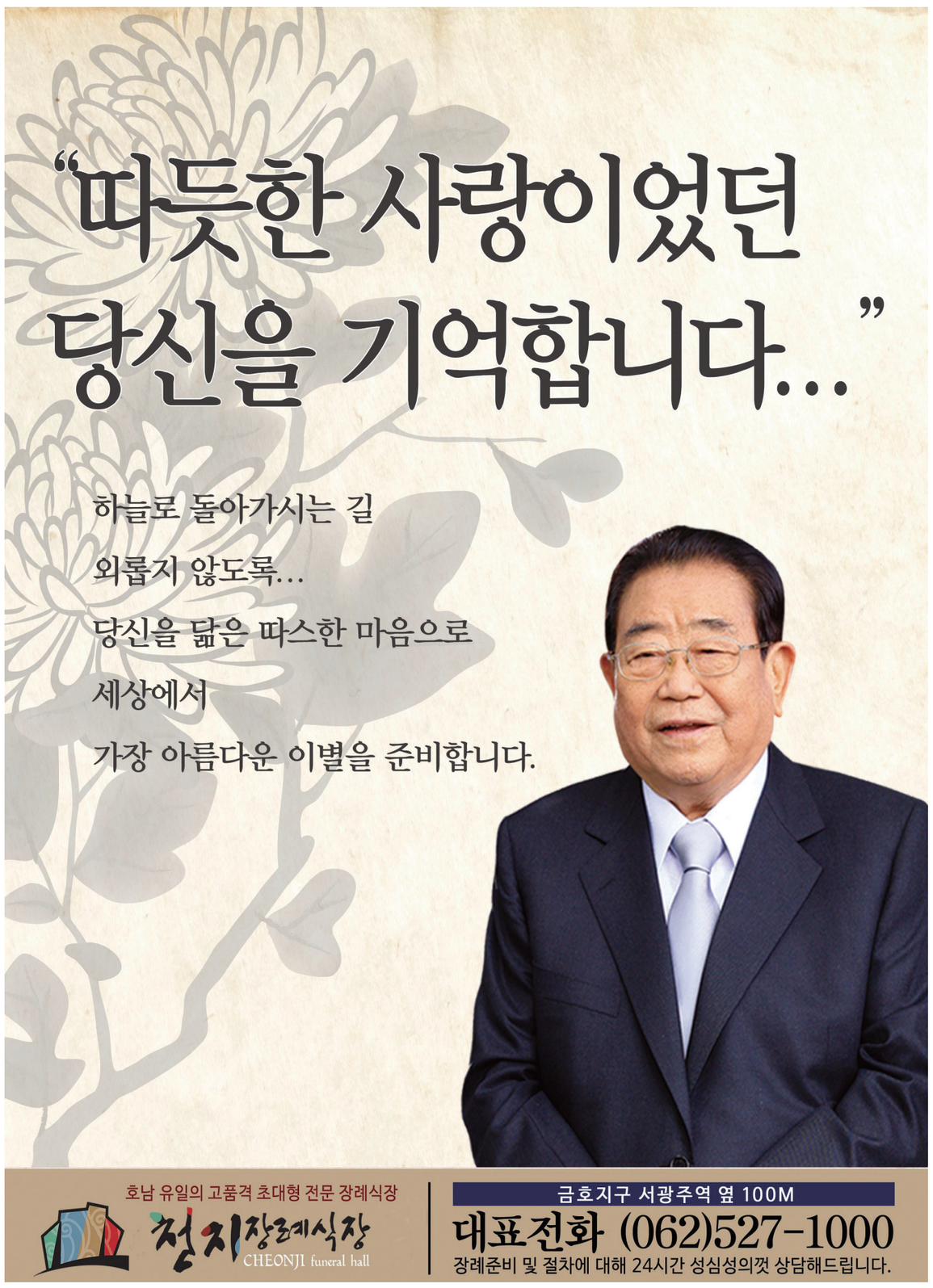
평균 87.2…작년보다 0.32 ↑

전남도가 15개 산하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한 결과, 평균점수 87.27점으로 지난해보다 0.32점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난해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는 2020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기관별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CEO) 성과평가'로 나눠 리더십, 경영시스템, 자치단체 정책 준수,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지표에 맞춰 경영성과를 심층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도정 핵심과제 연계 노력' 지표인 블루이코노미, 전남형 지역균형 뉴딜 관련 성과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0개 기관의 평가 점수가 전년보다 높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최고 수준인 '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CEO) 성과평가'에서는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평가 등급에 따라 각 기관의 성과급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